

世界 原油需給 전망

OPEC(石油輸出国機構) 總회가 6월부터 10% 減産을 실시하기로 결정 함으로써 앞으로 産油國의 석유동향은 OPEC 中의 최대産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向背에 좌우될 것 같다.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減産이 小幅에 그칠 경우, 수급정세는 별로 악화되지 않고, 통상 베이스에 가까운 需給밸런스를 유지하겠지만, 하루 1백50만 배럴 정도의 대폭 감산을 실시할 경우, 금년 10~12월부터 상당한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OPEC總會에서는 일단 10% 감산을 결정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각국의 合意를 성립시킨 것 같다. 한편 戰爭復興을 위해 石油收入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이란, 이라크 兩國도 감산에 참가하

지 않은 상태이다. 또 이미 감산을 실시하고 있는 쿠웨이트, 나이지리아등은 技術面 財政面에서 또 한번의 감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이유로 「10% 減産이 어느 수준까지 一律으로 철저하게 실시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 그러나 減産下의 世界需給을 예상하는데는 금년 5월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사우디, 이란, 이라크 3國을 제외한 OPEC 10개국이 一律로 10%감산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다시 사우디의 감산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보충분인 하루 60만 배럴만을 감산하여 생산수준을 하루 9백70만배럴로 하는 경우와 감산폭을 하루 1백50만배럴로 하여 8백70만—8백80만배럴까지 생산을 줄이는 경우의 2가지 케이스를 상정했다.

사우디의 감산이 小幅인 경우(케이스C)

는 금년 10~12월에 하루 1백20만배럴, 내년 1~3월에 2백10만배럴이 부족되겠지만, 예년의 경우 이 시기는 季節需要가 늘어나 備蓄을 소비하는 시기에 해당되므로, 이 정도의 공급부족은 통상베이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케이스C에서는 減産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사우디가 대폭감산을 하는 경우(케이스B)에는 상태가 상당히 변화된다. 7~9월에 공급이 약간 부족되고, 내년 1~3월에는 日量 3백10만배럴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거의모든 大消費國은 100일 정도의 備蓄을 갖고 있으므로 이 케이스에서도 供給難이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수급상황은 스파트價格을 비롯한 原油價格動向에 惡影響을 줄 것 같다. *

OPCE 減産下의 世界的 石油需給밸런스(單位日量百萬배럴=에너지研試算)

	81年1~3月		81年7~9月			81年10~12月			82年1~3月		
	A	B	A	B	C	A	B	C	A	B	C
[需 要]	49.0	45.5	46.0	46.0	46.0	49.0	49.0	49.0	50.0	50.0	50.0
[供 給]											
O P E C	24.8	24.5	25.2	22.9	23.9	26.0	23.7	24.7	26.0	23.7	24.7
非O P E C	21.5	22.0	22.1	22.1	22.1	22.2	22.2	22.2	22.3	22.3	22.3
共産圈에서 의 輸 入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計	47.2	47.4	48.2	45.9	46.9	49.1	46.8	47.8	49.2	46.9	47.9
[需 給 差]	- 1.8	+ 1.9	+ 2.2	- 0.1	+ 0.9	+ 0.1	- 2.2	- 1.2	- 0.8	- 3.1	- 2.1

註：케이스A：OPEC가 減産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B：사우디아라비아 이외가 10% 減産하고, 사우디가 日量 870만배럴 생산하는 경우

케이스C：사우디 이외가 10% 減産, 사우디가 日量 970만배럴 생산하는 경우